

석유업계소식

저유황유·고유황유 가격차 확대 고도화시설 수입기자재 1% 할당관세 적용

정부는 정유사의 탈황시설등 시설고도화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저유황유와 고유황유의 가격격차를 국제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李東圭 동력자원부석유조정관은 지난 11월 17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석유협회 주최의 제9회 석유세미나에서 「90년대의 석유정책방향」의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는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감안, 유황함량규제등 석유제품 기준을 계속 강화하는 한편, 석유가격구조도 개편하여 저유황유와 고유황유의 가격격차를 유황1%당 현행 0.36\$/B에서 1~1.5\$/B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李國장은 현재 원유관세 10%, LPG, 등유, 휘발유 수입관세 5%로 되어있는 경질제품의 역관세 현황을 시정하고, 특별소비세의 불합리성을 개선하여 휘발유특소세를 인하하며, LPG특소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히고, B-C油 등 일부유종에 대한 가격자율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李國장은 또 정부는 환경등 새로운 소비자욕구에 대해 수동적인 대응자세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정유사에 대해 오는 92년부터 B-C油의 유황 한도치를 현행 1.6%에서 1%로 강화하여 공급하고, 92년부터 0.4%의 초저유황경유를 전국적으로 공급 토록 하는 한편, 정유사의 탈황등 환경관련투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李國장은 구체적인 석유산업지원시책으로서 탈황시설용 원료유에 대해 1%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탈황시설용 수입기자재에 대해 관세감면을 추진하는 한편, 중질유분해시설용 원료유에 대해서도 1% 할당관세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李國장은 석유산업구조개편문제에도 언급, 『우선 시급한 것은 기존정유사를 통한 공급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유전개발등 상류부문진출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석유산업의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 주유소 허가제, 정제업자의 유통부문 참여제한 등에 대해 단계적인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내정유사간 거래에 적용하고 있는 최고가격제를 11월초부터 폐지 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내수가격의 한도내에서만 가능했던 정유사간 석유제품거래가 국내시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동자부에 따르면 정유사간 최고가격제는 그동안 국내석유제품가격 안정차원에서 시행돼 왔으나, 최근 들어 정유사간에 발생하는 품목별 보유재고의 불균형으로 재고과다보유회사는 내수가격보다 수출가격이 높은 경우 국내물량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수출을 하고, 또 이와 반대로 국내물량이 남아도는데도 수입을 하는 경우가 생겨 석유제품수급에 지장을 초래해 왔다는 것이다.

실례로 비수기인 여름에는 국제가격이 정유사간에 적용되는 최고가격보다 저가여서 재고부족회사는 수입을 선호하고, 성수기인 동절기에는 국제가격이 최고가격보다 고가이므로 국내회사에서 받기를 원하고 있으나, 재고과다보유회사는 비수기에는 국내정유사 공급을 선호하고, 성수기에는 국내정유사공급을 기피함으로써 정유사들이 석유제품거래에 많은 애로를 겪어왔다.

88년중 정유사간의 석유제품거래 물량은 약 1천2백만배럴로 전체소비물량 2억5천1백만배럴의 약 4.8%를 차지하고 있다.

동자부·체육부 존속 정부조직개편 獨政案 확정

정유사간 최고가격제 폐지
11월부터 석유류수급 원활위해

정부는 월동기를 앞두고 석유제품수급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0월 17일 행정개

혁위원회가 전의한 정부조직개편의 1단계 조치로 내년 1월부터 문화공보부를 분리해 문화부와 공보처를 신설하고, 환경청을 환경처로 승격시키기로 확정했다.

또 행정개혁위원회의 전의에 따른 문화체육부통합안을 보류, 체육부를 현행대로 존속시키기로 했으며, 동자부를 상공부에 통합하는 문제와 해운항만청을 교통부에, 산림청을 농수산부에 통합하는등 논란이 많은 일부 부처의 통폐합여부는 추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를 거쳐 정부조직개편안을 이같이 마련하고行政委의 전의안을 오는 91년 말까지 3단계로 나눠 신중한 검토를 거친 다음 추진키로 했다.

동력자원부

미얀마 C광구 석유개발사업허가

동력자원부는 미얀마 C광구에 대한 油公의 석유탐사 및 개발사업을 지난 10월 18일자로 허가했다.

미얀마의 C광구는 공개입찰에서 油公에 낙찰되어 지난 10월 3일 미얀마 국영석유개발회사와 이 광구에 대한 생산분배계약을 체결했다. 油公은 현재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향후 운영권확보에 필요한 지분만을 보유하고 나머지 지분은 국내외 석유개발회사에 지분을 양도하여 공동개발할 계획이다.

油公은 앞으로 5년간 총7천2백만달러를 투자하여 탐사활동을 벌일 계획인데, 주탐사지역은 석유발

極東精油, 重質油분해공장 준공 B-C油 3만4천 B / D 처리

極東精油(대표 張洪宣)가 국내 최초의 重質油분해공장 건설을 끝내고 지난 11월 13일 忠南瑞山郡大山面大竹里 현지에서 盧泰愚대통령을 비롯, 李鳳瑞동자부장관, 지역주민등 1천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다.

55만평 부지위에 내외자 5천3백60억원을 들여 지난 85년 7월에 착공, 이날 준공된 大山공장은 하루 3만4천배럴의 B-C油등 중질유를 분해, 휘발유와 등유, 경유등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極東精油는 이날 大山공장 준공으로 멕시코산 마야원유, 中國產 승리원유등 低價重質원유의 처리가 가능해져 이에 따른 외화절감및 경질유제품의 수입대체로 연간 6천4백만달러의 무역수지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極東精油는 작년 11월에 완공돼 그동안 시험생산을 해오던 하루 정제능력 6만배럴 규모의 정유공장도 이날 함께 준공식을 가졌다.

이번에 완공된 大山공장은 가격이싼 B-C油등 중질유를 분해하여 LPG, 등유, 경유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경질유제품을 생산하는 첨단시설로 앞으로 국내輕·重質油간의 수급불균형을 크게 개선하고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低유황유의 공급확대도 가능하게 됐다.

원유를 정제하면 보통 나프타 20%, 등유 10%, 경유 20%와 高유황의 B-C油 50%가 각각 생산되는데, 이 가운데 나프타는 다시 LPG와 휘발유등으로 분해하는 시설이 국내에 있으나, B-C油는 국내에 분해시설이 없어 산업용 연료로만 사용해 왔다.

이번에 건설된 중질유분해공장은 바로 이 B-C油를 다시 한번 화학적으로 처리해 등유와 LPG 각각 4.5%, 휘발유와 제트油 각각 5.7%, 나프타 8.1%, 경유 54%등 값비싼 고급연료를 만들어내는 시설이다.



『소요에너지자원의 안정공급확보 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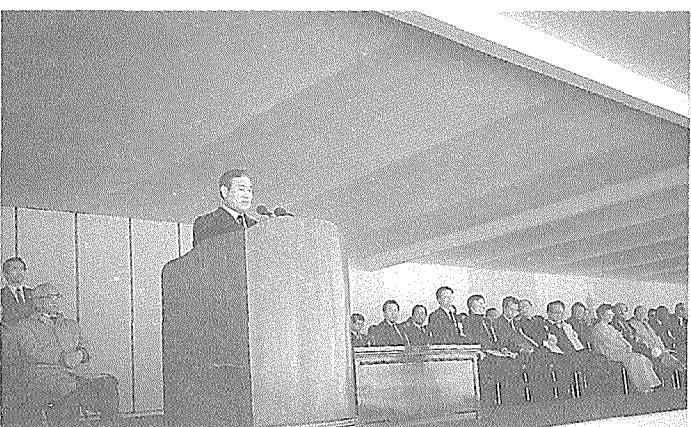
盧대통령, 極東精油 大山공장준공식 참석

盧泰愚대통령은 지난 11월 13일 하오 忠南瑞山郡大山面 제3석유화학단지에서 거행된 極東精油 大山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이날盧대통령은 준공식의 연설을 통해 『오늘 준공되는 極東精油 大山공장과 함께 관련산업의 석유화학제련공장들이 잇달아 세워지고 90년대 중반까지 신소재, 정밀화학등 첨단산업시설들이 들어서게 되면, 이 지역은 蔚山, 麗川과 같은 종합석유화학단지를 이룰 것』이라면서 『瑞山과 당진을 포함한 이 일대는 앞으로 북방교역과 아시아·태평양교역의 주요한 관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盧대통령은 이어 『極東精油 大山공장의 준공으로 민간주도에 의해 서해안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은 더욱 뜻깊은 일』이라고 전제하고 『앞으로 大山지역을 비롯하여 石門, 송악, 仁州등 忠南지역과 群山, 長項, 그리고 木浦의 大佛지역을 연결하는 서해안고속도로가 완성되면 이 서해안은 세계적인 규모의 거대한 공업벨트를 형성하여 조용한 농경지역이 우리 경제에 번영을 일구는 활기찬 터전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盧대통령은 또 『우리나라와 같이 부존에너지자원이 빈약한 여건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소요에너지자원을適期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밝히고, 『우리는 언제 있을지 모르는 제3의 에너지위기에 대비하여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반을 다져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견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는 친드원분지와 샤우보 모니와분지가 발달하고 있는 곳이다. 특히 친드원분지내에는 제2차세계대전 이전에 석유를 생산한 실적이 있는 인디우유전이 분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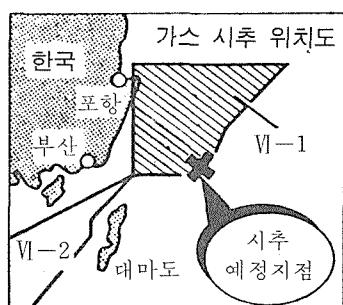
6-1광구 「돌고래 V」 시추

12월중 가스부존여부 판명

정부는 지난 11월 1일부터 국내 대륙붕 제6-1광구 내의 돌고래 V구조(蔚山 동방 약 80km 지점)에 대한 기초시추에 들어갔다.

제6-1광구는 국내대륙붕 장기 개발계획에 따라 油開公이 4천8백 51km의 물리탐사와 4개홀의 시추탐사를 실시하여 2개홀에서 가스층을 발견했다.

정부는 지난 4월에 전반적인 지질특성과 가스층의 정밀평가 및 향후 탐사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美國 익스플로이테크社에 종합평가를 의뢰한 결과, 가스부존이 가능한 유망구조 12개를 확인했는데, 총 1조 4천6백60억입방피트의 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중 돌고래 V 구조는 단일구조로도 개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스부존이 확인될 경우 다른 유망



구조에서의 가스발견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 구조를 최우선탐사대상 구조로 추천하여 옴에 따라 이번에 시추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이번 시추탐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8백만달러로 탐사결과는 오는 12월 20일경에 판명될 예정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신청사기공식 31억원들여 의왕시 내손동에



신청사기공식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李會晟)은 지난 10월 18일 李鳳瑞동자부장관 및 관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665의 1에서 신청사기공식을 가졌다.

내년 9월에 준공될 예정인 새청사는 2천5백평의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총사업비 31억 4천만원이 투입된다.

해양오염관리해역 확대 내년부터 43곳 추가지정

해양오염 관리대상해역이 현행 28개 해역에서 71개 해역으로 대폭 늘어난다.

환경청이 마련한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관리해역의 범위 및 해수

에너지정책의 환경기능 강화 크래킹 및 탈황시설 계속 확충

정부는 악화일로에 있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에너지수급체획을 전면 재검토, 새로운 에너지전략을 수립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10월 26일 동자부가 확정, 발표한 에너지부문환경대책방안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환경公害源의 상당부분이 에너지소비에서 유발되며, 에너지는 경제성장 및 국민복지향상에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앞으로의 에너지정책은 에너지·환경·경제정책간의 균형조화를 이루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자부는 그 이유로 과도한 환경요인의 강조는 에너지의 안정수급 뿐만 아니라 기업의 원가부담 상승에 따른 국제경쟁력 약화로 경제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반면에 환경요인의 지나친 경시는 체적한 생활환경은 물론 생존 자체를 위협하게 되므로 실기할 경우 막대한 대가를 수반하게 되고 심지어 치유불가능할 우려가 있어 에너지와 환경관계의 균형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의 기본방향으로는 LNG등의 저공해 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정유사의 중질유분해시설 및 탈황시설을 오는 92년까지 3만5천B/D 신증설, 현재의 3만6천9백B/D에서 7만1천9백B/D로 늘리기로 했다.

또 오는 2000년대초까지 총에너지의 7% 이상을 저공해에너지인 LNG로 공급하기 위해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배관망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오는 92년까지 총4천4백42억원을 투자, 전국 4개 구간의 장거리송유관(총연장 993km)을 조기건설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부문의 환경대책기능을 강화, 에너지경제연구원 및 동력자원연구소 등 관련연구기관에 환경대책기능을 신설 보강하고, 동자부내의 분산된 환경담당기능을 통합 보강키로 했다.

서울지역 황산화물(SO₂) 농도에 대한 에너지원별 점유율

(단위 : %)

	무연탄	석유					기타	계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小計		
1985	69.71	0.13	0.19	7.28	22.67	30.27	0.02	100
1987	70.39	0.19	0.17	6.62	22.61	29.59	0.02	100
1988	65.80	0.26	0.21	8.22	25.43	34.12	0.08	100

동자부, 월동기 석유수급대책 등유 31일분 · 경유 17일분 유지

동력자원부는 올겨울 총에너지수요가 지난 겨울에 비해 12.1% 늘어난 4천8백30만톤(석유환산)에 달할 것으로 보고, 석유제품 및 무연탄수급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수송용·난방용·석유화학용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석유제품은 소요물량의 적기확보를 위해 국내정제시설을 최대한 가동, 하루 89만8천배럴을 생산 공급하는 한편, 원유수율상 부족되는 하루 18만3천배럴의 석유제품은 조기수입을 통해 평균재고량을 15일분 이상 유지도록 했다.

특히 지난 겨울철 수급파동을 겪었던 등유와 경유는 저장시설을 각각 54일분 및 29일분을 확보하고, 재고수준을 등유는 전년대비 1백35% 증가한 31일분, 경유는 43% 늘어난 17일분을 유지토록 했다.

또 저유황(유황함량 1.6%)B-C油는 28일분의 재고를 유지, 수요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조치했다.

유종별 수요전망

(단위 : 천 원)

수질측정망 확충계획」에 따르면 현재 順天灣, 광양만 등 4개 内灣해역과 仁川, 반월, 아산 등 24개 연안해역을 중심으로 설정돼 있는 28개 관리해역을 앞으로 신설되는 7개 근해해역을 포함하여 71개 관리해역으로 확대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환경청은 이를 위해 해역별 해수수질측정지점도 현행 1백99개소에서 3백6개로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환경청은 이와 함께 仁川공단앞과 소래천 하구등 12개 지점에 내륙오염원 감시측정망을 신설, 내륙오염원에 의한 해양오염방지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油公 · 油開公等 4社
아랍에미리트 유전개발 참여

OPEC(석유수출국기구) 회원국이
며 중동산유국인 아랍에미리트 내
의 유전개발사업에 우리나라 기업
들이 진출한다.

동력자원부에 따르면 油公, 油開公, 럭키金星, 現代종합상사등 4개사는 최근 캐나다 IPL社와 아랍에미리트의 RAK 광구를 공동개발키로 학의, 동자부에 사업계획을 보

고했다.

油公등 4개 업체는 우선 내년에 2백만달러를 투자, 1개孔을 시추하며, 개발시 지분율은 4개社가 25% 씩 나눠 갖는다.

RAK 광구는 인근에 5개의 육상 및 해상유전이 있는 산유지대에 위치해 유전개발이 유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 법정용기사용 의무화 서울시 관련법시행규칙 개정안의

서울시는 지난 11월9일 석유판매업소에서 법정용기 사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법정용기 생산업체에 석유기금 저리융자지원을 통해 쌍값으로 석유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동력자원부에 전의했다.

이 개정안 확정되면 앞으로 법정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석유판매업소는 적발될 경우 당국에 의해 고발된다.

이번 전의는 팽창이 안되는 특수재질로 만들어지는 법정용기가격이 20ℓ의 경우 1만2천원으로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기보다 4배나 높아 판매업소가 사용을 기피함에 따라 정량판매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소비자들의 불신을 받아온데 따른 것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시내 1천 87곳의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에서 적발된 2백19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1백14곳이 양을 속여 팔거나 고시가격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겨울철 난

油公, 주유소 서비스 경진대회

11월 6~10일 서울·釜山에서

油公은 지난 11월6일부터 10일까지 서울과 釜山지역의 4개 주유소에서 '89년도 주유소서비스 경진대회를 실시했다.

이 대회는 자동차가 주유하기 위하여 주유소에 들어와서 나갈때까지 판매원이 고객 및 자동차에 제공하는 「드라이브웨이 서비스」를 평가하기 위해 주유소경영 기본과정과 관리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대회는 매스컴과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다.

청기와주유소에서 실시된 서울1지역대회에서는 삼양석유 스마일팀이 최우수상, 중앙석유 거북이팀이 우수상, 삼일사 그랑프리팀이 장려상을 받았고, 양재동주유소에서 실시된 서울2지역대회에서는 안국상사의 호랑이팀이 최우수상, 흥국상사 HK2팀이 우수상, 동보석유 친절팀이 장려상을 받았으며, 삼미북부주유소에서 실시된 서울3지역대회에서는 서울석유 원양팀이 최우수상, 삼양석유 코끼리팀이 우수상, 삼일사 다크호스팀이 장려상을 각각 받았다.

한편 부산지역에서는 영남석유 불사조팀이 최우수상, 영동석유 호랑나비팀이 우수상, 동방석유 번개팀이 장려상을 각각 받았다.



방용 기름수급대책을 마련, 올겨울 소비예상량을 작년보다 20% 늘어난 하루평균 2만8백36㎘로 보고

하루 최고 2만8천5백24㎘를 수송 할 수 있도록 수송차량 7백78대를 확보토록 했다.

湖南精油, '89임원세미나

10월 20~21일 道高에서

湖南精油는 지난 10월 20~21일 양일간 忠南 도고호텔에서 具斗會 사장을 비롯한 회사 및 계열회사 임원 51명이 참석한 가운데 89년도 임원세미나를 가졌다.

조직풍토개선과 경영자·임원의 책임강조를 목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신유근교수(서울대)의 「기업문화와 조직활성」이라는 주제강의와 윤명원선생(국립국악원)과 한국남박사의 특강이 있었다.



표면금리 13%, 3년 만기조건으로 대신증권이 주간사를 맡았으며, 새한종합금융이 원리금지급을 보증하였다.

油公, 윤활유제품

API 심벌마크 획득

油公은 지난 9월 13일 美國석유협회(API)로부터 「유공하이플로」, 「유공SD 5000」, 「Superflo XT」 등 3가지 제품에 대한 API심벌마크를 새로 획득했다.

API심벌마크는 美國석유협회에서 규정한 엔진오일에 대한 성능등급으로서 현재 美國에서 생산·판매되고 있는 차량엔진을 사용하여 실제로 도심지나 고속도로상에서 또는 혹한기나 혹서기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가혹한 조건을 모사하여 실시하는 시험법에 의해 규정된 성능등급을 말하는데, 표준화된 성능평가기준으로서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신뢰성 높은 평가기준이다.

油公, MTBE공장 준공 하루 2천배럴 생산규모

油公은 지난 11월 17일 高 옥 탄 청 정 휘발유원료인 MTBE(*Methyl Tertiary Butyl Ether*)제조공장을 준공했다.

휘발유원료의 일종인 MTBE는 다른 휘발유원료와 달리 산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연소효율을 높이고 배기ガ스를 감소시켜 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지난 88년 5월에 착공, 1백94억 원이 투입되어 완공을 본 油公 MTBE 공장은 하루 2천배럴, 연간 8만6천톤의 생산능력을 갖고 있다.

油公, 보증사채 1천억원 발행 설비투자자금조달 위해

油公은 지난 10월 13일 설비투자 자금 조달을 위해 보증사채 1천억 원을 발행하였다.

油公, 蔚山콤플렉스 안전조업기록 경신

油公 蔚山콤플렉스는 지난 10월 17일자로 지난 78년 4월 22일에서 81년 9월 9일에 걸쳐 달성했던 무재해 안전조업 최고기록인 8백41만 9천7백99인시를 경신했다.

油公, 蔚山콤플렉스 제11회 취미전

油公 蔚山콤플렉스는 지난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蔚山소재 대신 증권 울산지점 전시실에서 제11회 油公취미전을 가졌다.

油公 蔚山콤플렉스 음악동우회 KBS 근로자 가요제서 은상

油公 蔚山콤플렉스음악동우회는 지난 10월 23일 여의도 KBS 별관 공개홀에서 벌어진 제5회 전국근로자 가요제에서 은상을 차지했다.

湖南精油, 석유화학부문기구 개편

湖南精油는 지난 10월 1일자로 석유화학부문의 기구를 다음과 같이 개편하였다.

- 정영희 유화기획 · 영업담당상
무=석유화학개발부 · 방향족 기획부 · 방향족영업부 관장.
- 조대영 PP기획 · 영업담당이 사대우=PP기획부 · PP영업부 관장.

湖南精油, 전국영업소장회의

湖南精油는 지난 10월 6일 全州 코아호텔에서 전국영업소장회의를 가졌다.

湖南精油 김재식선수 우승 '89아시아테니스대회

許東秀 호유부사장, 제1회 CAPRI 참석 주제발표



許東秀湖油부사장은 지난 11월 5일부터 7일까지 美國 휴스턴에서 개최된 제1회 CAPRI(Conference on Asia Pacific Petrochemical and Refinery Integration)에 참석하여 「한국 정유산업과 석유화학 산업의 발전과정과 전망」이라는 주제 발표를 했다.

하와이대학 동서문제연구소와 텍사스 주상무성이 주관하고 연방정부 상무성이 후원한 이 회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정유산업과 석유화학 산업의 통합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는데 아시아 태평양 각국의 전문가 240여명이 참석했다.

허부사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최근의 국내 유류 소비패턴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정유사의 설비 고도화에 따른 문제점을 주로 경제성을 중심으로 제기하였다.

또한, 80년대의 석유화학 봄과 석유화학산업 자율화 조치에 따라 국내에서 계획되고 있는 석유화학산업 관련 투자계획과 각사의 계열화에 따른 경제성 확보를 위한 중복 투자로 발생될 설비과잉 문제를 주로 다루었다.

湖南精油테니스단 소속의 김재식 · 배남주선수가 지난 10월 16일부터 24일까지 中國 北京에서 거행된 '89아시아테니스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김재식선수는 이번 대회단식에서 中國의 장주화를 2 대 0으로 누르고 우승한데 이어 배남주선수와 짹을 이룬 복식결승에서 산지아 · 장주화組를 역시 2 대 0으로 누르고 2관왕에 올랐다.

湖油 배구단 · 테니스단 전국체육대회서 우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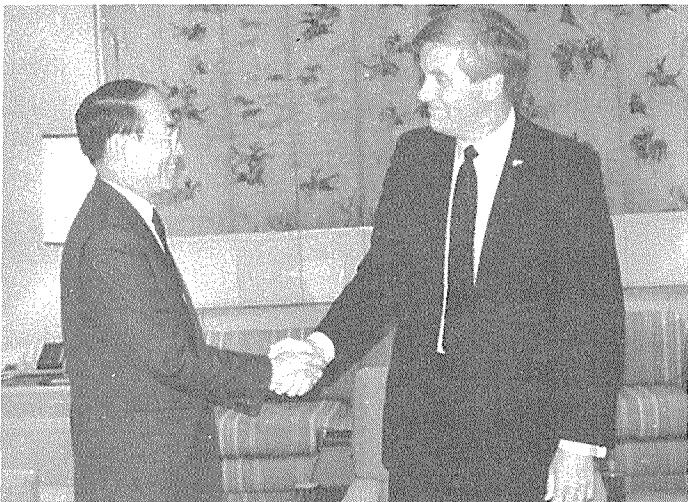
湖南精油 배구단과 테니스단은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수원에서 열린 제70회 전국체육대회에 全南대표로 출전,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배구단은 수원 내무부연수원체육관에서 벌어진 결승에서 경남대표 한일합심을 3대 0으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고, 테니스단은 수원

京仁에너지·美 유노칼社 에콰도르 B광구 유전개발사업 참여계약서명

京仁에너지는 南美 에콰도르 13광구 유전개발 사업에 참여키로 확정하고, 지난 10월 5일 이 광구의 개발 운영권자인 美國 Unocal社의 LA 본사에서 成樂正 대표이사와 Unocal社 대표간의 참여계약 서명식을 가졌다.

이로써 京仁에너지는 현재 인도네시아의 와림광구 유전개발 사업에 한국측 운영권자로서 참여하고 있는데에 이어서 또 하나의 해외 유전개발사업을 벌이게 되었다. 한편 금번 에콰도르 13광구는 탐사작업 결과 석유 부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록테니스코트에서 벌어진 결승에
서 경남대표 현대해상팀을 물리치
고 우승했다.

湖南精油 사진반 정선서 야외촬영 모임

湖南精油 사진반은 지난 10월
7,8일 양일간 강원도 정선 화암8경
에서 가을 촬영모임을 가졌다.

湖南精油, 하반기 전국 저유소장회의

湖南精油는 지난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麗川공장 상황실에서
89하반기 전국저유소장회의를 가졌다.

운영담당이사, 운영부문 본사 부
/과장, 15개 저유소장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동계 제품운영
방침과 상반기 비용예산 집행현황
을 분석토의하고 익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 방향과 동절기 유조차량
지원계획 등 주요현안 문제를 중점
논의하였다.

湖南精油, 직매고객초청 테니스대회

湖南精油는 지난 10월 22일 판
교종합수련소 테니스 코트에서 직
매 고객들을 초청, 테니스대회를
가졌다.

직매 고객과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매2부 주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총 25개 회사에서 90여
명이 출전하여 5개조로 편성, 각조
풀리그로 경기가 진행되었다.

경기결과는 다음과 같다.

▲ 우승

- A 조 : 삼립식품
- B 조 : 한국전기초자
- C 조 : 원진레이온
- D 조 : 조홍화학
- E 조 : 경남모직

▲ 준우승

- A 조 : 한국제지
- B 조 : 매일유업
- C 조 : 아세아제지
- D 조 : 한국티타늄
- E 조 : 대한팔프

▲ 특별상

미기상 : 금호쉘화학

장려상 : 서울우유

인기상 : 한국화이자

장려상 : 신무림제지

湖南精油, 국방부 조달본부장 감사패 받아

湖南精油는 지난 10월 23일 국방부 조달본부창립 19주년을 맞아 그동안 양질의 유류를 적기에 납품하여 자주국방을 위한 전력증강에 이바지한 공로로 국방부 조달본부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京仁에너지, 「PRO-2000 전진대회」 가져

京仁에너지는 지난 10월 21일 「PRO-2000 전진대회」를 仁川공장 복지관앞 광장에서 成樂正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본사 및 공장의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날 成樂正 대표이사는 대회사를 통하여, 『날로 악화되어가는 경영 환경속에서 우리 京仁에너

지가 2000년대의 동종업계 선두 기업으로의 부상과 초 일류기업으로 변신하기 위해서는 PRO-2000 운동을 통한 임직원 모두의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날 대회는 참석자 모두가 PRO-2000 운동과 관련하여 제작된 티-셔츠를 입고 참가한 가운데 PRO-2000 깃발 수여, 경과보고, 임직원의 실천다짐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또한 지난 10월 말에 응모 접수한 관련 표어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도 있었는데, 문익재(생산부)사우의 <참여하여 문제찾고, 지혜모아 개선하자> 작품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었다.

소+발전소)이, 응원상은 원유팀(생산부)이 차지하였다.

京仁 仁川공장

4/4분기 소방안전교육 실시

京仁에너지 仁川공장은 지난 10월 한달간 8차례 걸쳐 400명의 직원에게 89년도 4/4분기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하였다.

京仁, 황기석씨 仁川경찰국장상 수상

京仁에너지 仁川공장 비상계획부에 근무하는 황기석씨는 지난 10월 20일 44주년 기념 경찰의 날에 모범 청원 경찰로 선정되어 仁川직할시 경찰국장상을 수상하였다.

京仁에너지, 창사 20주년 가족체육대회 가져

京仁에너지는 지난 10월 28일 仁川공장 발전소 운동장에서 본사와 공장의 임직원 및 가족들이 함께한 가운데 그룹 창립 37주년 및 京仁에너지 창사 20주년을 기념하는 가족 체육대회를 가졌다.

이날의 종합 우승은 전기팀(연구

京仁 仁川공장 수석회 강원도 정선에서 탐석활동

京仁에너지 仁川공장 수석회는 지난 10월 22일 강원도 정선군 남평리에서 정기 탐석활동을 벌였다.

京仁, 카메라멘클럽 강화도 보문사에서 촬영대회

京仁에너지 仁川공장 카메라클럽은 지난 10월 29일 강화도 보문사에서 25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제3회 정기 야외 촬영대회를 가졌다.

한편 카메라멘 클럽은 11월 중에



카메라 조작에 관한 기초강연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사진에 관심을 갖고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참석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한다.

雙龍精油 温山공장

무사고 200만인시 달성

雙龍精油 温山공장은 지난 10월 10일 13시57분을 기하여 제2차 무사고 200만인시를 달성하였다.

温山공장은 1984년 7월 20일 제1차 무사고목표 100만인시를 달성한 이래 1987년 3월 연속300만인시 기록을 비롯, 그동안 일곱차례나 각종 무사고 달성기록을 이룬 바 있다. 한편 温山공장은 이번 무사고 기록달성의 수고를 치하하는 의미에서 전사원에게 기념품을 나눌 예정.

雙龍精油 테니스대회

'89추계대회 개최

雙龍精油 테니스회는 지난 10월 3,4째주말에 '89추계 테니스대회를 개최, 10월 21~22일 원당소재 헤리스코트에서 부서대항 단체전을, 10월 28~29일 서울 영동코트에서는 조별 개인전을 벌였다.

단체전에는 본사 및 温山공장(인사후생부, 연구개발부)의 12개 부서가 참가했고 개인전도 40여명이 참가, 맑은 가을하늘아래 그동안 닦아온 기량을 마음껏 겨룬 이번 대회의 우승은 단체전을 경영관리부가, 개인전은 신우철·문명주 사우(A조)와 조관무·송민수사우(B조)가 각각 차지하였다.

이에 앞서 10월 9일 温山공장의 테니스회는 蔚山 종합테니스장에서 제9회 테니스회장배 쟁탈대회를 가진 바 있다.

雙龍精油 温山공장

영상회 정기촬영대회

雙龍精油 温山공장 영상회는 지

난 10월 15일 언양소재 신불산에서 가을철 정기 촬영회를 개최하였다.

가을 단풍이 아름다웠던 이날 신불산에서는 대통령기쟁탈 전국동반대회가 함께 열려 영상회의 행사가 더욱 뜻깊었다고.

雙龍精油 낚시회

'89 정기납회

雙龍精油 낚시회는 지난 11월 12일 89년도 정기납회를 가졌다. 회원과 그가족등 20여명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경기도 화성군소재 수촌리 수로에서 열띤 진행되었는데, 비가 계속 내리는 가운데서도 작황은 모두들 좋은 편이었다고. 대회결과 27cm의 붕어를 낚아올린 회계부 안덕수과장이 대어상을 차지.

□신간안내□

석유의 이해

- 대한석유협회 홍보실 -